

# 불교와 가톨릭 모두 먹는 것도 수행 정진

### 박문성 가톨릭대 교수, <인도철학> 42집에서 소개

동서양을 막론하고 출가 수행자들은 음식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을 따랐다. 그 이유는 세속을 떠나 절제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부의 신분으로 인도철학 박사를 받은 박문성 가톨릭대 동양철학 교수는 최근 <인도철학> 42집에 인도 수바교 파슈파타 학파의 음식규정과 가톨릭 수도승 음식규정의 비교 고찰 논문을 실었다.

평가했다.

이러 박 교수는 “수행자들의 탁발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수고로움, 구걸을 위한 겸손함, 모멸감, 원치 않는 음식에 대한 당혹감 등이 함께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는 속박의 원인인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부여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가톨릭의 정주 수도승들은 규칙적인 삶을 중시했는데, 이는 절제

와 초기불교에서는 자신을 위해 죽인 것을 보고 듣지 않은 청정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됐다. 하지만 불교는 사람, 코끼리 등 10종류의 고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먹을 수 없었다.

박 교수는 “가톨릭의 사막교부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여겼다”며 “베네딕도회는 ‘네발 가진 짐승의 고기’로 금지내용을 한정해, 조류와 물고기는 허용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수행자들에게는 식사시간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거나 입을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닌 종교적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시간 안에 공통점이 있다”며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식사시간에 먹는 음식의 종류와 먹는 양, 속도 등에 대한 자기 절제와 규칙성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42집에는 <정조호영 총부대 철학> 교수의 ‘시대와 삶과 학문과 불연 이기영’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향운(香雲) 정태희 박사의 학문과 실천: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전념한 후학양성’ <황용식 명상연구자의 ‘서경수 교수의 업적과 현대 인도철학에 의한 전망’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근대 인도철학의 성립



박문성 가톨릭대 교수

과 하라탄잔(原坦山)의 역할’ <박문성 서울대학교 신부의 ‘파슈파타학파와 그리스도교 수도승의 음식규정에 대한 고찰’ <출라공론대 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법진 스님의 ‘동남아시아 빨리어 문자와 불교사본’ <박정준 동국대 교수의 ‘대지도론에 나타난 대승의 염불과 선’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삼무성론에 나타난 진제의 삼성설 해석의 특징’ <황순일 동국대 교수의 ‘연기법승, 아리아 운율, 그리고 빨리 올장대품’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가톨릭 신부 출신 인도철학 박사

### 인도 수바교·불교·가톨릭 비교

된 삶을 지향했기 때문”이라며 “탐식의 욕정을 다스리고, 수도승이 서원한 가난을 준수하고, 이 시간을 더불어 기도와 독서나 목상과 같은 영적활동을 할 것을 함께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음식에 대한 파슈파타학파와 초기불교, 초기가톨릭의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파슈파타학파

### 인도철학불교학연, ‘사찰음식’ 학술포럼

동국대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소장 정승석)는 2월 28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행복한 치유로 이끄는 한국 사찰음식, 근원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사찰음식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대전 영선사 주지 법승 스님의 ‘한국 사찰음식의 특징과 실제 현황’ 기조발표를 비롯해 △이자랑 동국대 교수의 ‘진정한 미식(美食)은 무엇인가-불교 수행자의 음식 규정’ △김재민 불교대학원 교수의 ‘고행 수행자의 음식과 식사법’ △김미숙 동국대 교수의 ‘한·중·일 3국의 불교 사찰음식 비교’ △허남결 동국대 교수의 ‘웰빙과 힐링의 사찰음식 윤리’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무엇

을 어떻게 먹는가-요가 명상수행자의 이상적인 식생활’ 등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연일 짬, 유유족, 당근죽, 인도 차, 인도 커피 등 사찰음식과 인도 수행자 음식을 시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제공될 예정이다.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측은 “사찰음식의 원형이라 할 불교 수행자의 생활방식을 가장 오래된 연원, 인도에서 찾아 불교 수행자의 식생활 원칙의 근거와 원류를 밝혀낼 예정”이라며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형태와 가고 있는 신학문 분야인 불교음식학을 정립하는데 명실상부한 초석을 놓는 심포지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모집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윤영해)은 2015학년도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계약학과)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회의 및 전통사상서 번역, 템플스테이 운영과 지도 등 관광산업과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

학원 당 10명 내외의 정원으로 석사과정 5학기제로 운영된다. 지원 자격은 학사

학위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이며, 원서 접수는 1월 28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로 지원 가능하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신입생 전원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종단장학금으로 지급하며, 기숙사와 해외연수,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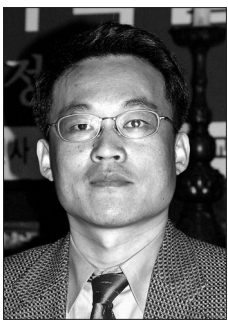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홈페이지(http://gsb.dongguk.ac.kr)에서 볼 수 있다. (054)770-2392

노덕현 기자

### “불교학계 쇄신해야, 시대 흐름에 앞서”

#### 조명제 신라대 교수, ‘불교학계에 대한 성찰과 전망’에서 비판

불교학계가 학술업적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한 학자의 뼈아픈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면 비정규직 연구자나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질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재가자 수행열풍, 학문적으로 어떻게 보나

#### 불교학연구회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진행

재가자들의 수행문화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1월 2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재가자 수행열풍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겨울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가자 수행현황에 대해 윤종갑 부산대 교수의 ‘부산지역 수행현황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며 △중양상가대 교수 재마 스님의 ‘템플스테이와 재가수행’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한국불교에서 재가수행의 역사 개관’이 각각 발표된다. 여기서는 신라, 고려, 조선, 근현대의 인물들이 개괄적으로 소개된다.

워크숍의 백미는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이다. 임순희 ‘털라 선공부 부산모임’ 지도법사,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박희승 한국문화연구원 교수 등이 종합토론에 나선다. 앞의 발표자들이 재가수행의 ‘현황’과 ‘역사’, ‘템플스테이와 재가수행의 관련성’에 대해 이론을 발표하면 현장 전문가들이 수행현황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금강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임순희 지도법사는 부산대

등지에서 선수행모임을 지도하고 있다. 박희승 한국문화연구원 교수는 서울 지역 선수행 현황을 통해 재가수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불교학연구회 측은 “한국불교계에서 재가불자의 수행단체가 속속 들어서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재가수행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재가수행이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학연구회가 발간하는 <불교학연구>는 통권 41호부터 기존 종이잡지에서 전자저널 형태로 바뀌어 간행된다.

전자저널은 이북(E-Book)과 피디에프(PDF) 파일 두 가지로 만들어져 회원들에 전자메일로 발송된다. <불교학연구>의 전자저널 간행은 지난 해 11월 29일 상임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학회 회원 및 연구자들 사이에선 사회의 디지털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왔다.

그러나 불교학연구회는 종이잡지를 필요로 하는 회원들을 위해 비록 소량이지만 계속 전자저널과 병행해 발간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 국가문화유산포털, 디지털콘텐츠 확대 개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정보 개방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통합 서비스인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을 1월 12일 개편했다.

사이버문화재탐방관은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하고 콘텐츠 30여 개를 보강했으며, ‘기록유산관’은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일기> 등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조선왕실도서의 원문 이미지, 텍스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열람은 1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품질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문화유산 3D’,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

유산 이야기를 소개하는 ‘문화유산 이야기’ 코너를 신설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유산포털에 등록된 사진 3만 3800여 건과 도면 8만 8300여 건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 수화와 자막, 음성해설이 반영된 영상 10편을 국가문화유산포털과 복지 TV를 통해 제공한다.

한편, 국립국악원(원장 김혜숙)도 1월 7일 공공지식 정보개방과 확대를 위해 고서 277권, 1만 3741면 원문을 국립국악원 홈페이지(www.gugak.kr)를 통해 서비스한다. 고서 원문 전체는 PDF와 인쇄가 가능하며 SNS를 통해서도 공유가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 <동아시아불교문화> 21집 원고 모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이진오, 조수동)는 2월 15일까지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1집 원고를 모집한다.

논문투고 분량은 <동아시아불교문화> 편집 기준 25쪽 이내로 초과 시 추가비용이 부담된다. 심사료는 3만원으로 게재될

경우 연구비 수혜 논문은 전임 30만원, 비전임 20만원, 일반 논문은 전임 10만원, 비전임 5만원의 게재료가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www.easternasia.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용,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 교육 과정

-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육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랑계
  - ◆ 49재, 천도요식
-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 개강일시: 수시모집 가능

- ◆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수 강 료: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상시모집
- ◆ 연 락 처: 054)975-4339

###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